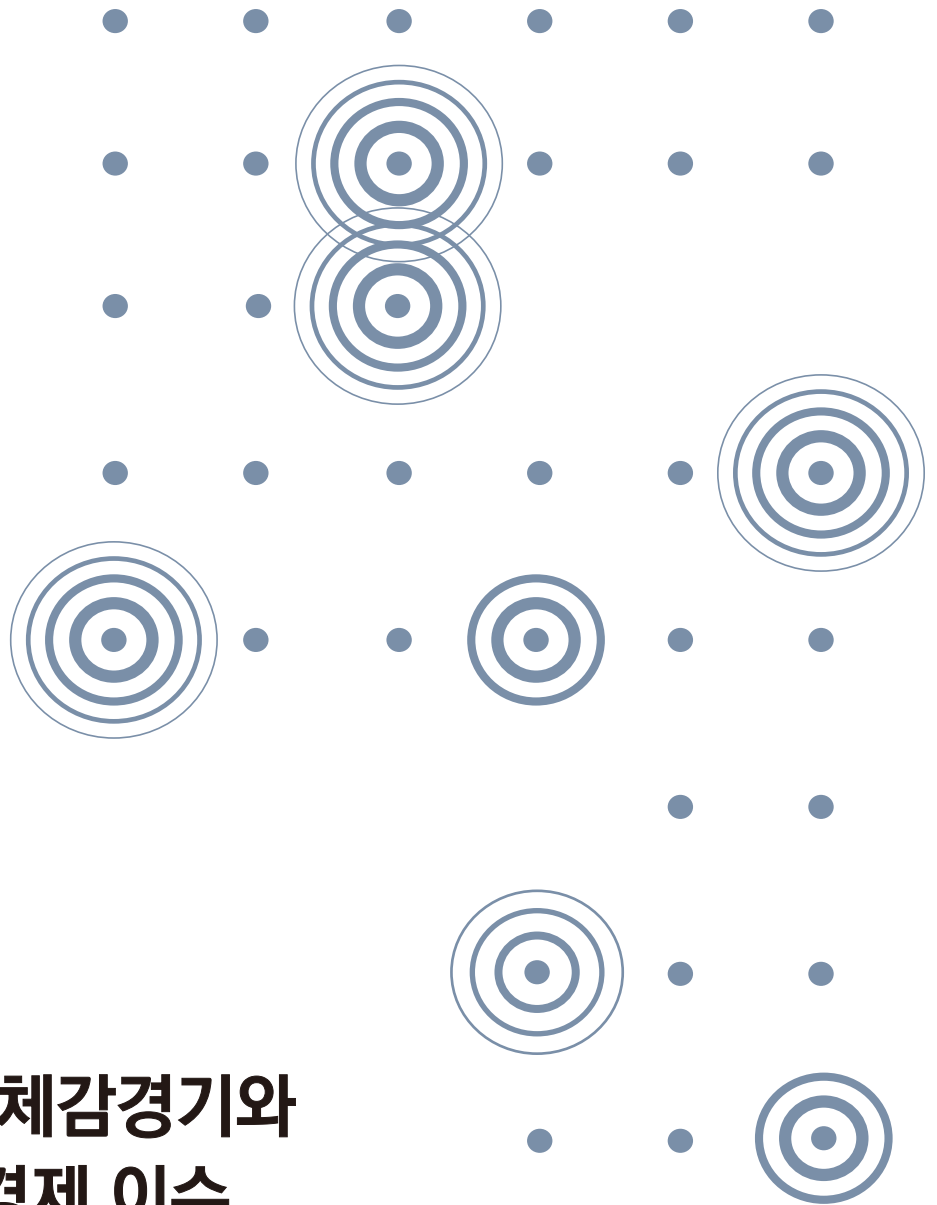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290호 2019. 12. 23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0년 주요 경제 이슈

최 봉

선임연구위원

장윤희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290호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0년 주요 경제 이슈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19년 12월 23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0년 주요 경제 이슈

최 봉 선임연구위원
02-2149-1059
cbong@si.re.kr

장윤희 연구원
02-2149-1280
yhjang80@si.re.kr

요약	3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Ⅱ.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2020년 주요 경제 이슈	19
부록: 2019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22

요약

서비스업생산 증가, 제조업생산은 큰 폭 하락

2019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0.5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였다. 「제조업생산지수」는 104.9로 전년 동월 대비 10.0%의 큰 폭으로 하락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6.3%를 기록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9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1.8% 하락하였고, 「백화점 판매액지수」(-1.1%)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3.3%)도 모두 감소하였다. 11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0.8% 증가한 512만 9천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보다 1.3% 증가한 87만 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9년 4/4분기 93.3으로 전 분기 대비 1.1p 증가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한 84.9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보다 0.9p 상승한 89.1을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0.3p 소폭 상승한 67.0,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2.7p 상승한 78.9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6으로 전 분기 대비 0.9p 상승하였으며,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 대비 1.5p 상승한 96.1을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태도지수」와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모두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지만, 「물가예상지수」는 하락하였다.

2020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순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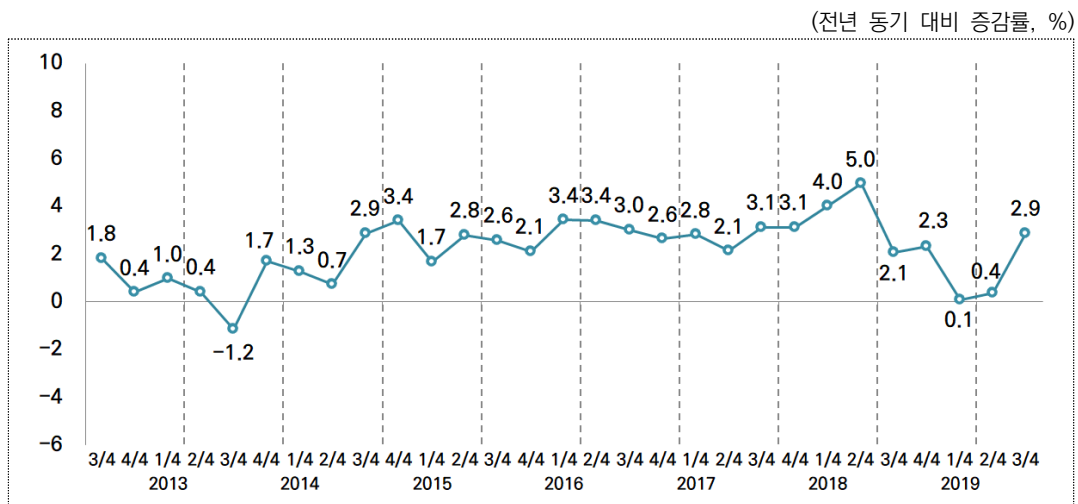
내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1순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28.0%)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은 ‘부동산 경기’(9.9%),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7.7%), ‘주 52시간 근무제’(6.8%), ‘소득양극화’(6.3%), ‘생활물가 상승’(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13개 경제 이슈 중 개선 전망 점수가 기준치(100)를 웃도는 이슈는 ‘4차 산업혁명 대응’ 1개이고, 나머지 이슈들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이 200점 만점에 102.9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에너지 정책’(95.3점), ‘청년실업 및 고용’(90.7점), ‘남북경제협’(88.6점), ‘주식 시장’(87.3점) 등의 순이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54.8점으로 개선이 가장 힘들 것으로 보았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I 서비스업생산 증가, 제조업생산은 큰 폭 하락

2019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

- 2019년 3/4분기 서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0.5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 「서비스업생산지수」는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며 전 분기(0.4%)에 비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4%)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금융 및 보험업(4.7%), 정보통신업(4.6%), 부동산업(4.2%) 등도 비슷하게 증가
 -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5.9%를 기록해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0%) 등도 하락
- 2019년 10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104.9로 전년 동월 대비 10.0%의 큰 폭 하락
 - 「제조업생산지수」는 2019년 10월 전년 동월보다 10.0% 감소하며 2018년 12월부터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기록
 - 7월 전년 동월 대비 -1.4%를 보인 이후 감소율이 점차 커지는 추세로,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6.3%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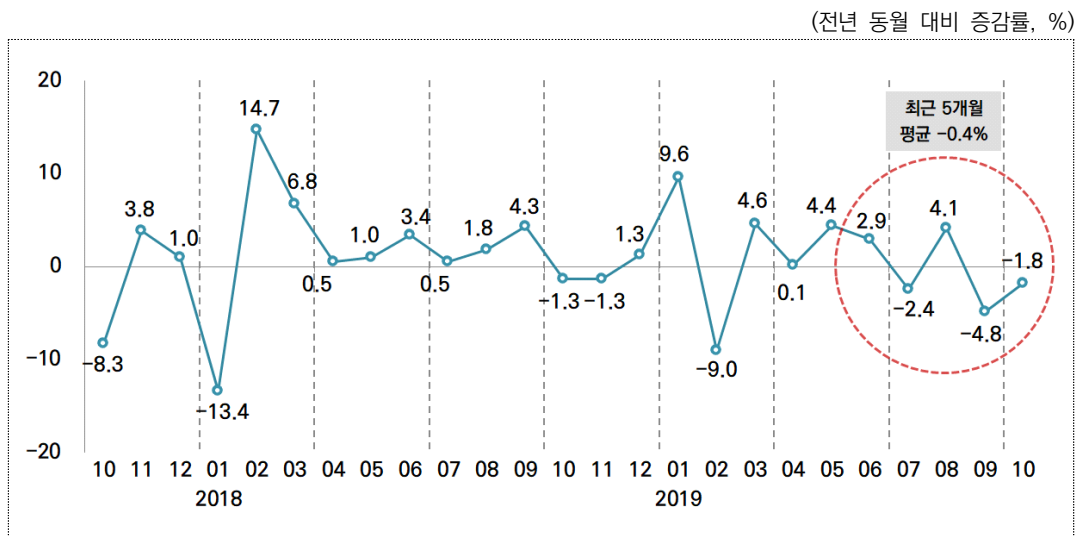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1) 2019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다.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

- 2019년 10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²⁾는 101.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하락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월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0.4% 기록
- 부문별로 보면, 10월 중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도 3.3% 감소하는 등 3개 지수가 모두 감소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10.5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기준치 10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3.0%를 기록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84.9로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하는 등 8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6.0%로 하락세가 큰 편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판매액지수 중 유일하게 기준치(100) 이하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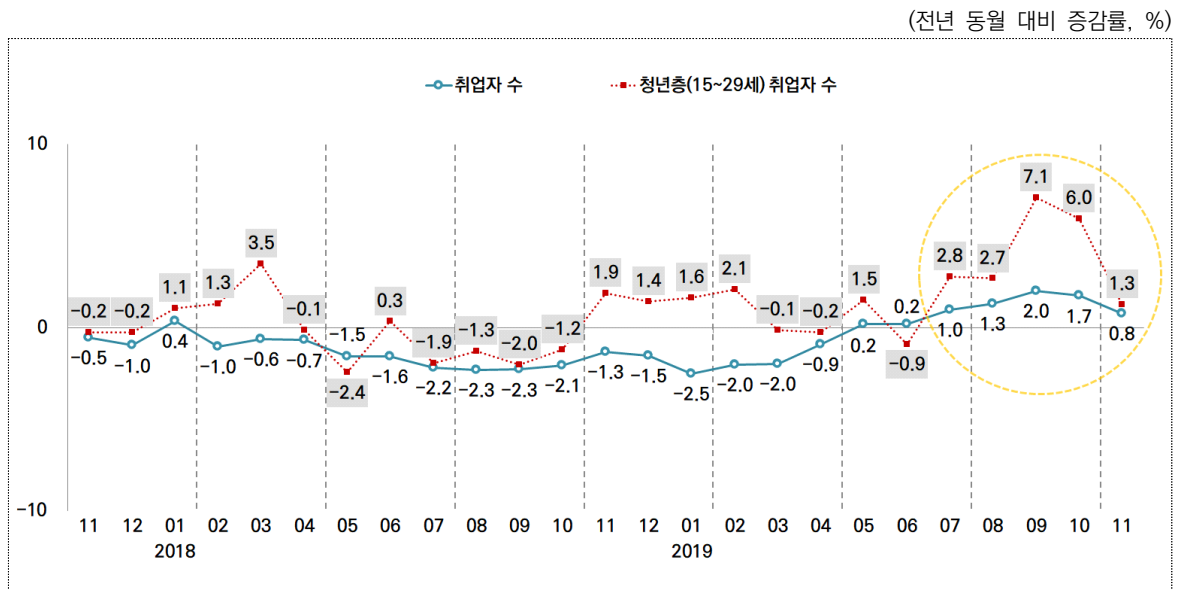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웃렛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웃렛이 제외되었다.

전체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

- 2019년 11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³⁾는 512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508만 9천 명)보다 0.8%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 전체 「취업자 수」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1.4%를 기록
- 2019년 11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5만 9천 명)보다 1.3% 증가한 87만 명으로 조사
 -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1.3%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4.0%를 기록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9월 7.1%, 10월 6.0%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상승세가 매우 큰 편
- 전체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좀 더 큰 것으로 조사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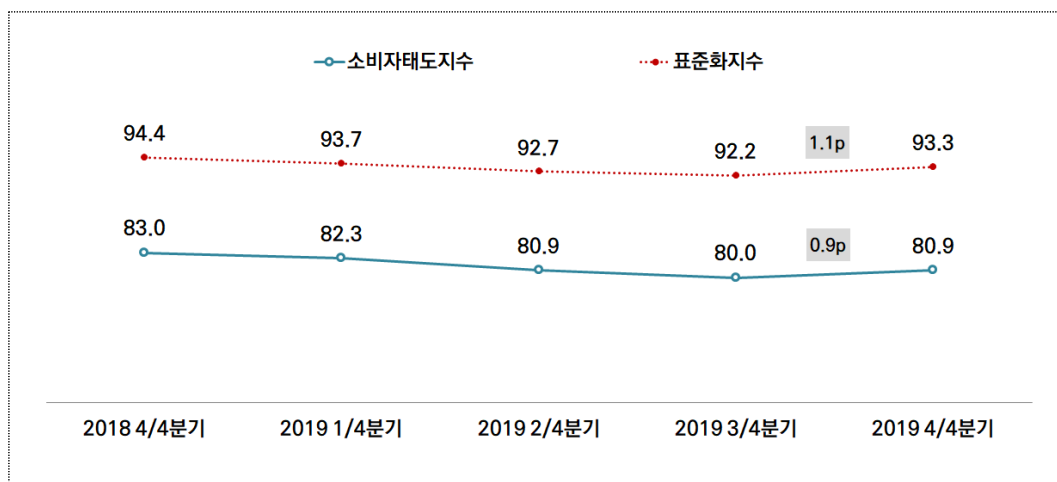
3)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다.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I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

- 2019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⁴⁾ 기준 93.3으로 전 분기 대비 1.1p 증가
 -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1.1p 증가한 93.3으로, 2018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 소폭 반등에 성공
 - 연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4.8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는 40대만 전 분기 대비 0.7p 소폭 하락하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상승
- 4/4분기 이후 내년도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는 고용지수의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개선될 전망
 - 「소비자태도지수」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기에, 향후 고용지표가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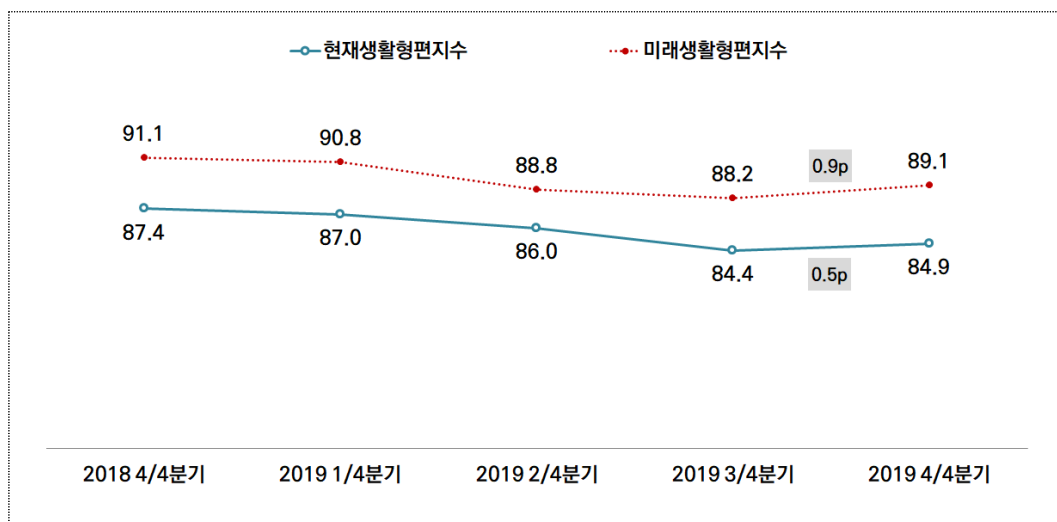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현재생활형편지수·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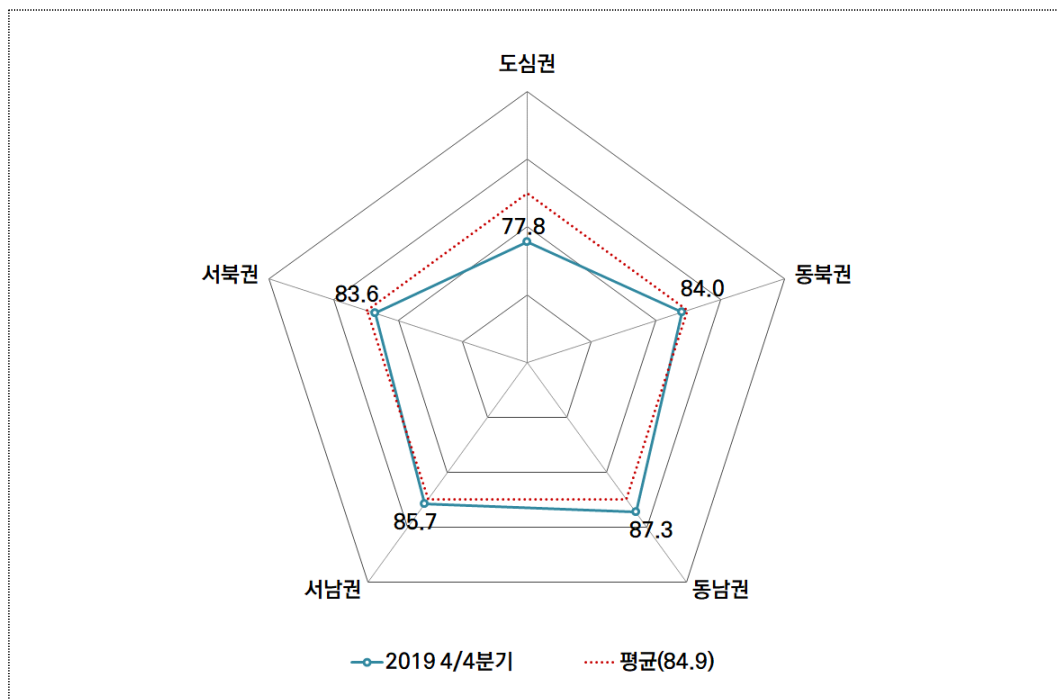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5p 상승한 84.9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 대비 0.9p 상승한 89.1을 기록
 - 소득계층별로 볼 때 연 가구소득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만 「현재생활형편지수」가 전 분기 대비 8.9p의 큰 폭으로 상승하고 나머지 가구는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0.5p 소폭 상승
 - 연령별로 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30대 이하에서 2.7p 올라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40대는 1.7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 1순위는 가계소득 감소
 - ‘가계소득 감소’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경기 불황’(26.0%)으로 나타나 ‘경기 불황’이 1순위였던 전 분기와 차이
 - 그다음은 ‘가계부채 증가’(12.3%), ‘지출비용 증가 예정’(11.3%), ‘물가 상승’(10.5%) 등의 순으로 응답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소득 감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가계소득 감소’가 48.4%에 달하는 등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는 ‘경기 불황’이 30.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가계부채 증가’ 및 ‘지출비용 증가 예정’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남권이 제일 높고, 도심권이 가장 낮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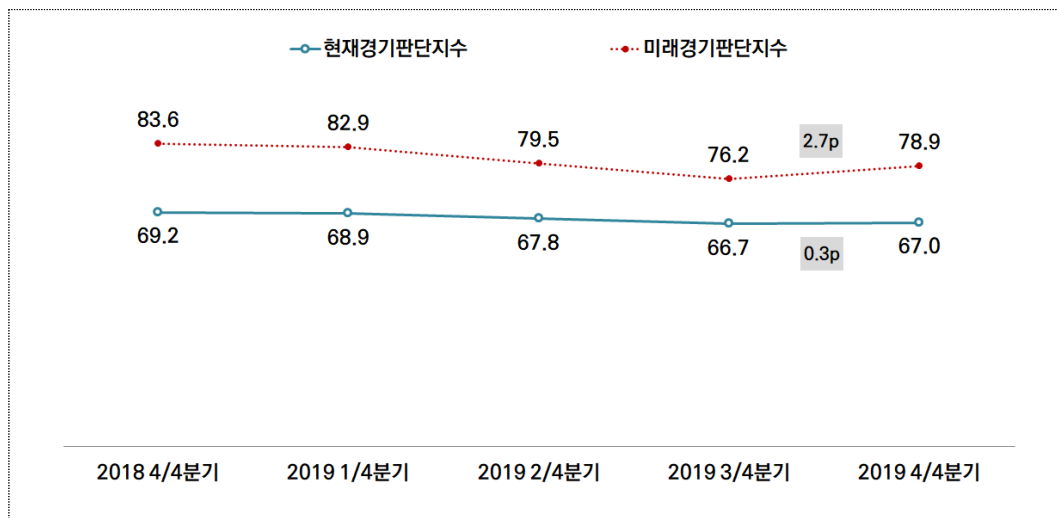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남권이 87.3으로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서남권(85.7), 동북권(84.0), 서북권(83.6) 순으로 3개 권역 모두 80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
 - 도심권만 77.8로 유일하게 70대 기록
- 2019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서남권이 3/4분기 대비 3.8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서남권이 3.8p 상승한 가운데 동남권도 1.9p 소폭 상승
 - 반면 도심권은 5.9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동북권(-2.5p), 서북권(-0.4p)도 소폭 감소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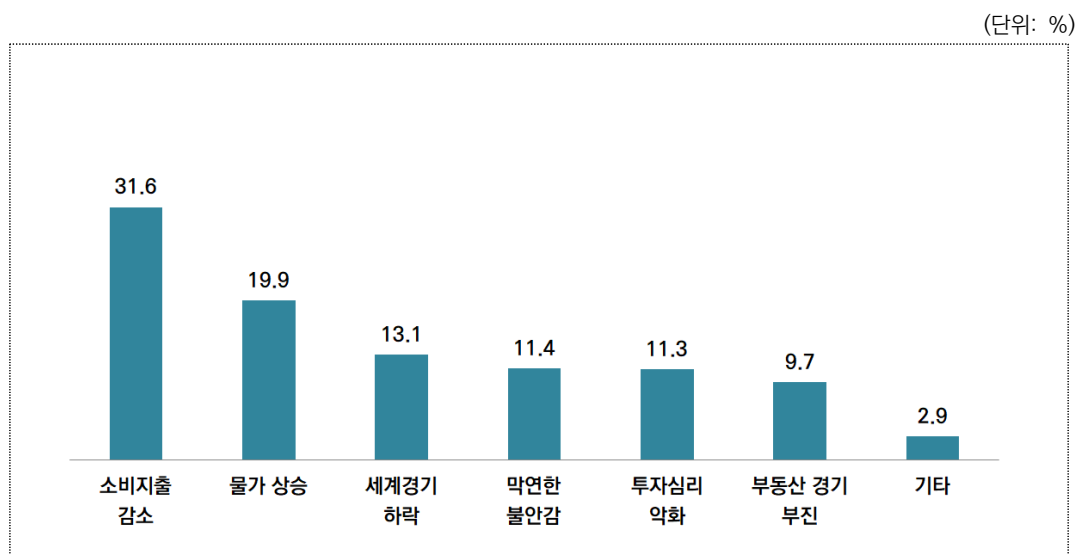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7.0으로 전 분기 대비 0.3p 소폭 상승
 - 4분기 연속 소폭 하락하였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분기 만에 소폭 상승하며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60대의 낮은 수준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서울의 제조업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며 이를 상쇄하여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
 - 연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8.9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6.7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 본 「현재경기판단지수」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50대는 유일하게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판단지수」가 모두 상승
- 2019년 4/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78.9로 전 분기 대비 2.7p 상승
 - 지난 분기까지 5분기 연속 하락하였던 「미래경기판단지수」 역시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8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전 분기에 이어 70대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 가구가 5.0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3.5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 본 「미래경기판단지수」 역시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소비지출 감소, 물가 상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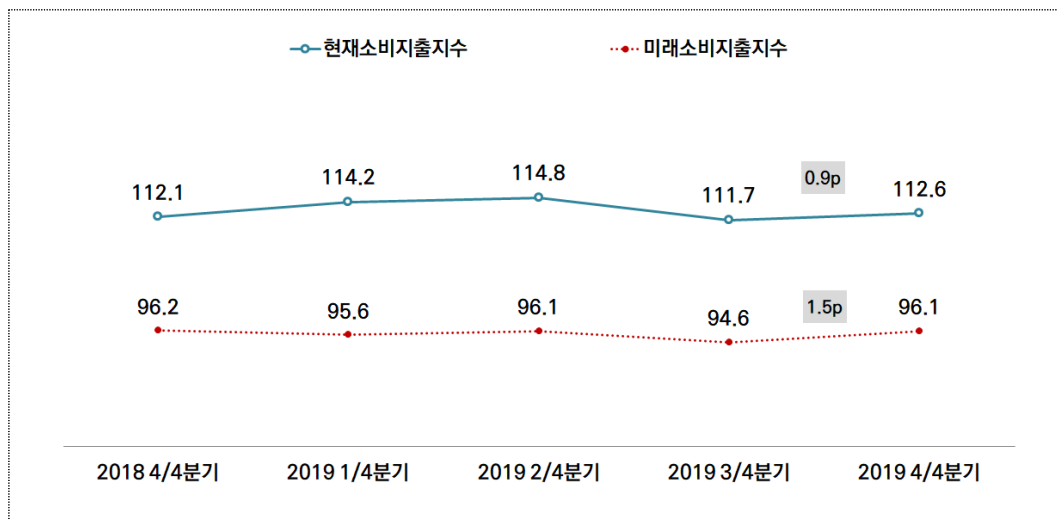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소비지출 감소’, ‘물가 상승’, ‘세계경기 하락’ 등으로 조사
 - ‘소비지출 감소’가 31.6%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물가 상승’(19.9%), ‘세계경기 하락’(13.1%) 순으로, ‘소비지출 감소’가 ‘물가 상승’에 비해 10% 이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소비지출 감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20% 이하를 기록
- 소득수준이나 연령대에 상관없이 대체로 ‘소비지출 감소’를 가장 큰 악화 전망 이유로 지목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유일하게 ‘물가 상승’(26.3%)이 ‘소비지출 감소’(22.7%)보다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하에서는 ‘물가 상승’이 27.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60대는 ‘막연한 불안감’이 17.9%로 ‘소비지출 감소’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
- 2019년 11월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전월과 같았으나, 전년 동월 1.9%보다는 1.5%p 하락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19년 7월 0.7% → 8월 0.2% → 9월 -0.1% → 10월 0.4% → 11월 0.4%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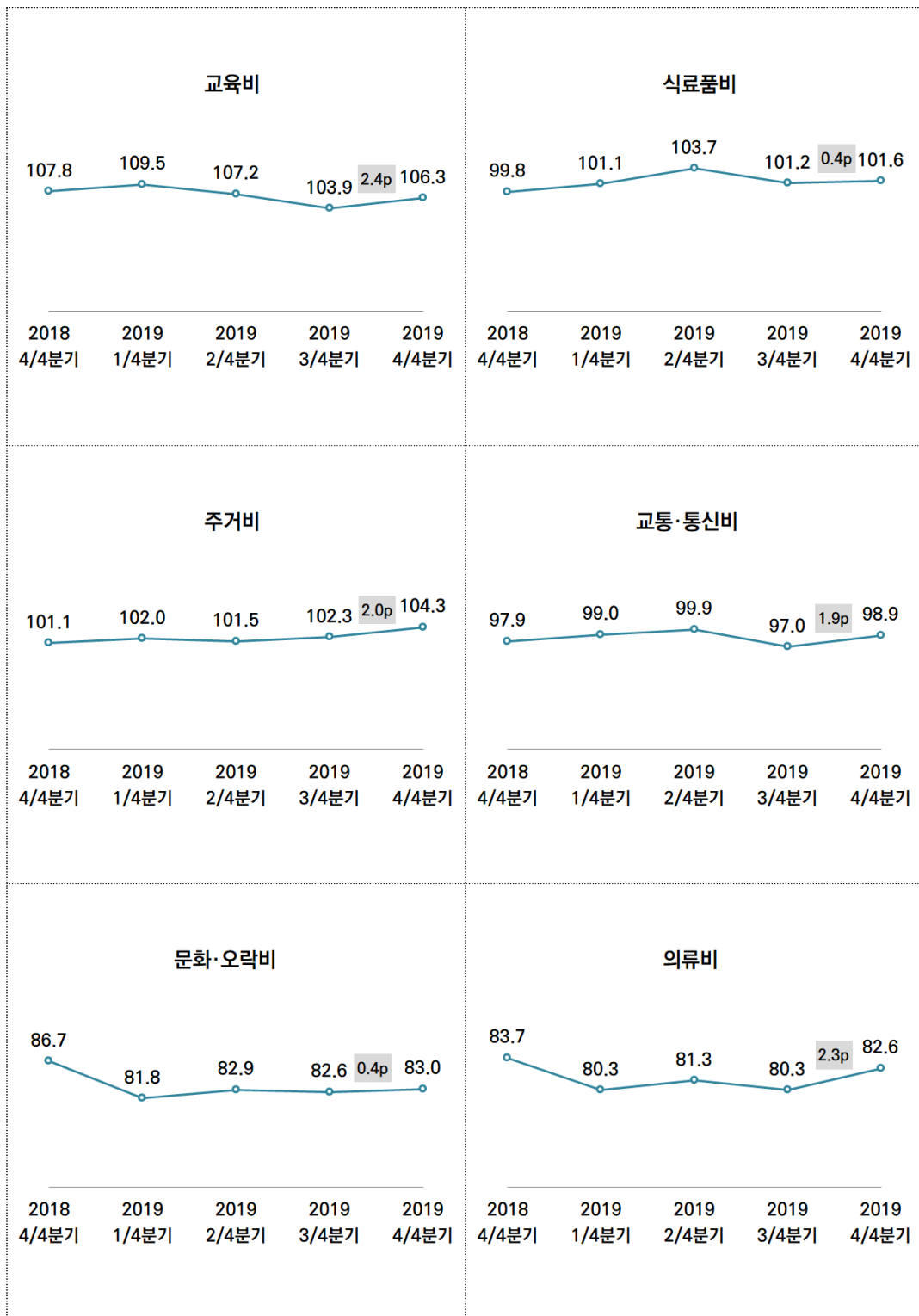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6으로 전 분기 대비 0.9p 상승
 - 지난 분기 소폭 하락하였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4/4분기 0.9p 상승으로 소폭 반등하며 2014년 1/4분기 이후 기준치(100) 이상을 유지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현재소비지출지수」가 전 분기 대비 6.8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나, 3,600만 원 이상 가구는 모두 상승
 - 가구주 연령별로 본 「현재소비지출지수」는 50대 이상은 전 분기 대비 하락, 40대 이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차이
- 2019년 4/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6.1로 전 분기보다 1.5p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만 전 분기 대비 0.5p 하락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30대 이하만 전 분기 대비 0.7p 소폭 하락하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상승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항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품목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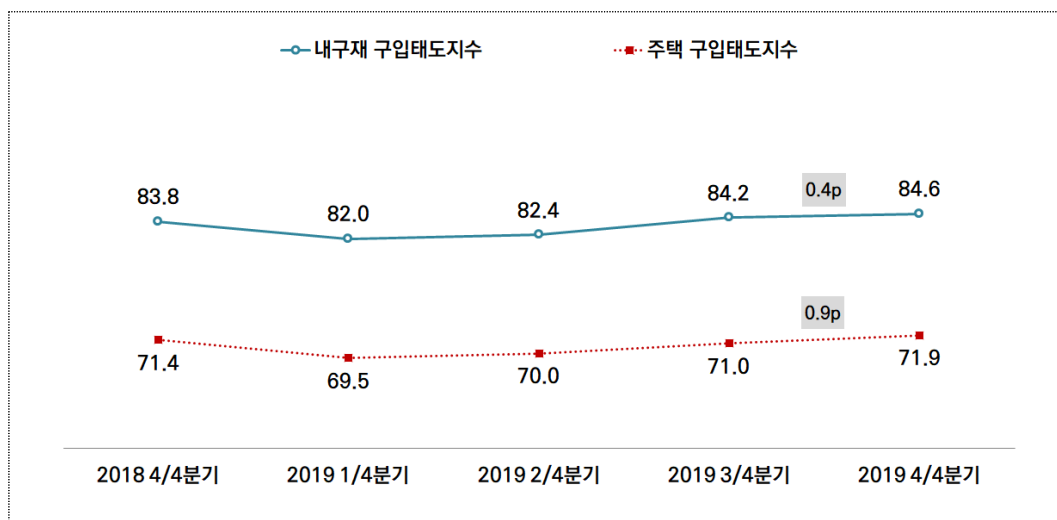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품목이 상승
 - ‘교육비’ 지수가 전 분기 대비 2.4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하며,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106.3을 기록
 - 그다음으로 ‘의류비’ 지수가 2.3p 상승하며 82.6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품목 중 가장 낮은 수치
 - ‘주거비’ 지수는 2.0p 상승한 104.3으로 ‘교육비’ 다음으로 높게 조사
 - ‘교통·통신비’ 지수는 1.9p 상승한 98.9였으며, ‘식료품비’와 ‘문화·오락비’는 모두 0.4p 상승
- 6개 품목 모두가 상승하였으며, 특정 품목의 두드러진 상승은 없는 상태
 -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4/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의사, 주택 구입의사 모두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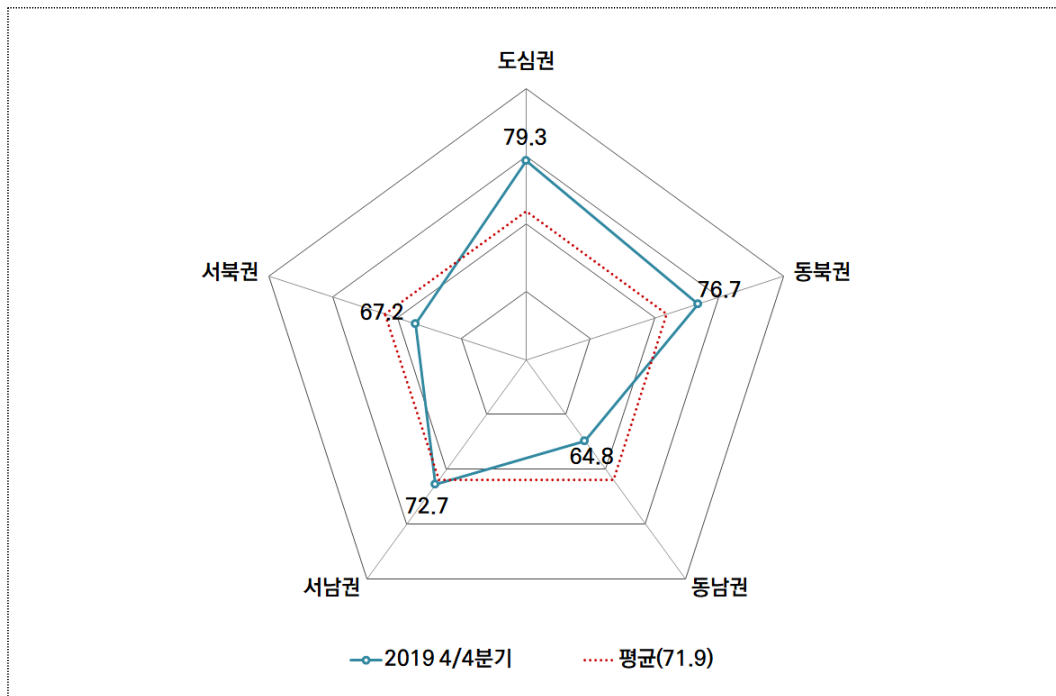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4p 상승한 84.6으로, 3분기 연속 소폭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3.2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3.0p 하락한 것으로 조사
 - 가구주 연령별로 본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50대 이상은 상승하고, 40대 이하는 하락
- 2019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0.9p 상승한 71.9로, 역시 3분기 연속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6.5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한 반면,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는 4.7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가구주 연령별로 본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0대만 0.2p 소폭 하락하였을 뿐, 다른 연령대는 모두 상승
 -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올해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1/4분기를 저점으로 소폭의 오름세 지속
 - 2019년 11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07.3으로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최근 몇 년 중 가장 높은 수치 기록(2019년 7월 105.9 → 8월 106.1 → 9월 106.3 → 10월 106.7 → 11월 107.3)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서울시민의 권역별 주택 구입의사는 서남권과 동남권에서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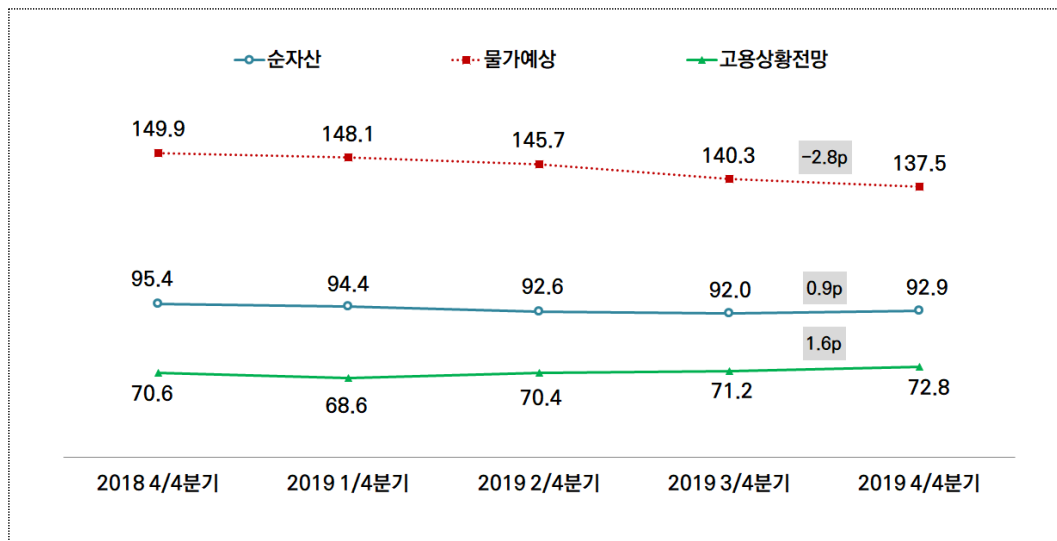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도심권이 전 분기 대비 11.2p의 큰 폭으로 상승
 - 도심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2p나 상승하며 79.3을 기록, 전 권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
 - 그 외에 동북권이 전 분기 대비 2.9p 소폭 상승한 76.7로 나타났으며, 서남권도 0.8p 소폭 상승
 - 서북권은 전 분기 대비 3.1p 하락한 67.2였으며, 동남권은 1.7p 하락한 64.8로 전체 권역 중에서 가장 낮게 조사
- 도심권만 큰 폭으로 상승하였을 뿐, 나머지 권역의 증감은 소폭에 그친 것으로 조사
 - 도심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80을 넘지 못하고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으며, 서북권과 동남권은 60대에 불과
 - 최근 동남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의사는 낮아진 것으로 판단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 소폭 상승, 물가예상지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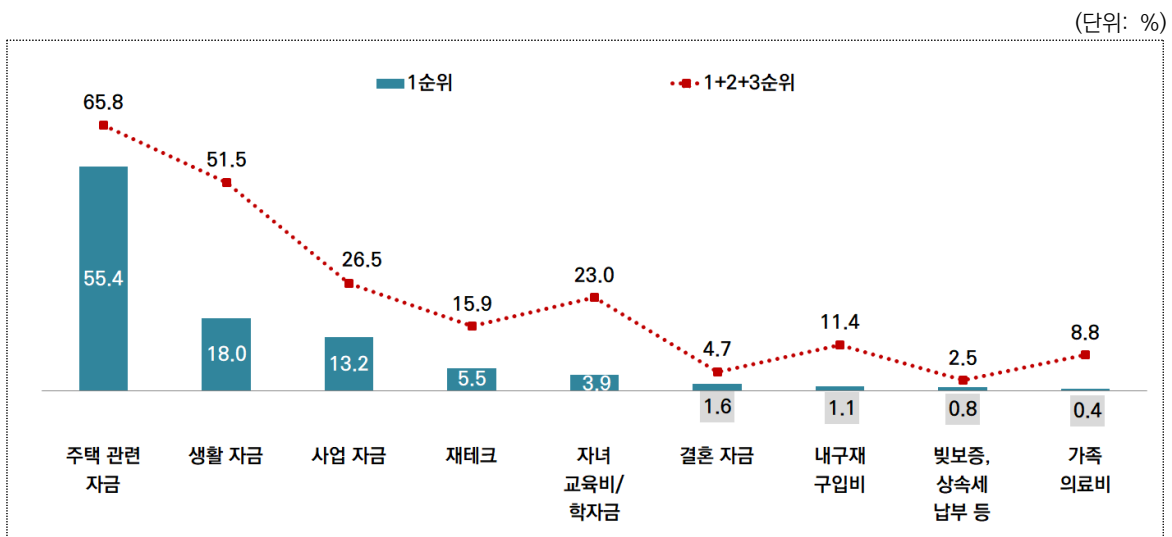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92.9로 전 분기 대비 0.9p 상승
 -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로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이 26.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금융자산이 늘었다’(25.3%), ‘부동산이 늘었다’(24.3%), ‘부채가 줄었다’(23.8%) 등의 순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32.2%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60대는 ‘부동산이 늘었다’는 응답이 46.3%로 절반 가까이 차지
- 2019년 4/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37.5로 전 분기 대비 2.8p 하락
 - 「물가예상지수」는 2018년 3/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모든 가구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9.3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전 분기 대비 4.6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2019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2.8로 전 분기보다 1.6p 상승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3분기 연속 소폭의 상승세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1.1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전 분기 대비 상승, 40대 이하는 하락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보다 하락

- 2019년 4/4분기에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59.1%로 전 분기 대비 2.4%p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는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의 가계부채 비율이 65.4%로 가장 높게 조사
 -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가 63.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0대(60.7%), 30대 이하(58.5%), 60대(50.9%)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21.2%로 전 분기 대비 0.8%p 하락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4.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32.8%), '상환 안 함'(2.7%)의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주택 관련 자금'(55.4%)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18.0%), '사업 자금'(13.2%), '재테크'(5.5%), '자녀 교육비/학자금'(3.9%) 등의 순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생활 자금' 비중이 33.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73.5%로 가장 높게 조사
 - 1~3순위 기준 역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5.8%, 51.5%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 자금'(26.5%)과 '자녀 교육비/학자금'(23.0%)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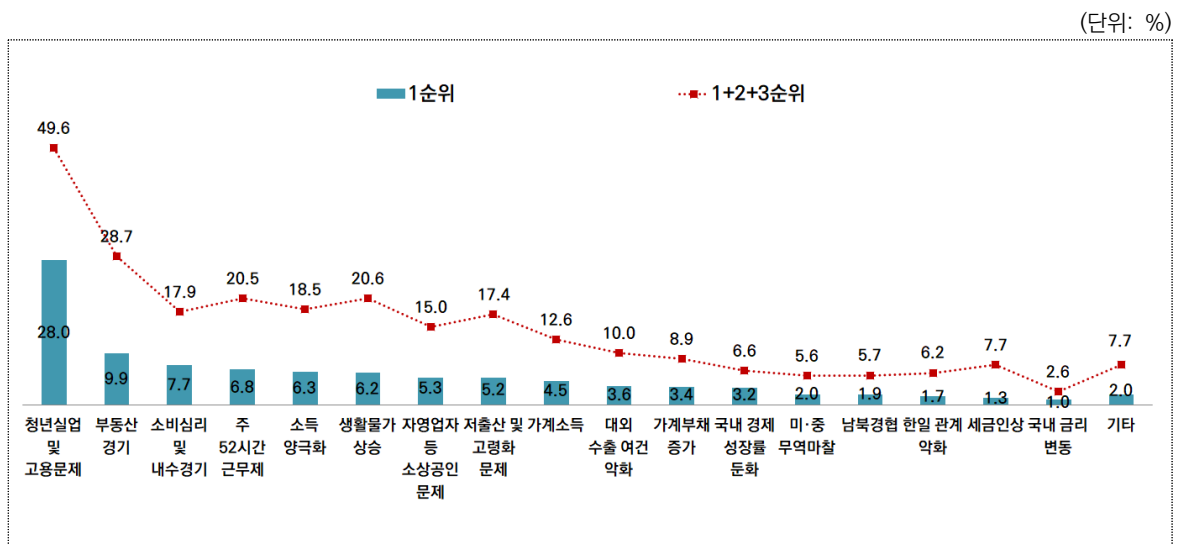
[그림 14]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2020년 주요 경제 이슈

Ⅰ 서울시민의 2020년 경제 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서울시민이 본 내년 경제 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 내년 경제 이슈로 1순위 및 1~3순위 합계의 응답 결과를 보면, 모두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작년에 비해 5.1%p 하락
 - 그다음 ‘부동산 경기’(9.9%),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7.7%), ‘주 52시간 근무제’(6.8%), ‘소득양극화’(6.3%), ‘생활물가 상승’(6.2%) 등의 순으로 조사
 - 1~3순위 합계 결과도 49.6%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지목하였고, 그다음은 ‘부동산 경기’(28.7%), ‘생활물가 상승’(20.6%), ‘주 52시간 근무제’(20.5%), ‘소득양극화’(18.5%),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17.9%),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17.4%) 등의 순으로 응답
 - 기타 이슈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0.5%), ‘중국 경제성장 둔화’(0.4%), ‘연금인구 증대’(0.2%), ‘주식시장 향방’(0.2%), ‘국제유가 인상’(0.2%), ‘기업 부실 리스크’(0.2%), ‘에너지 정책’(0.2%), ‘원달러 환율 인상’(0.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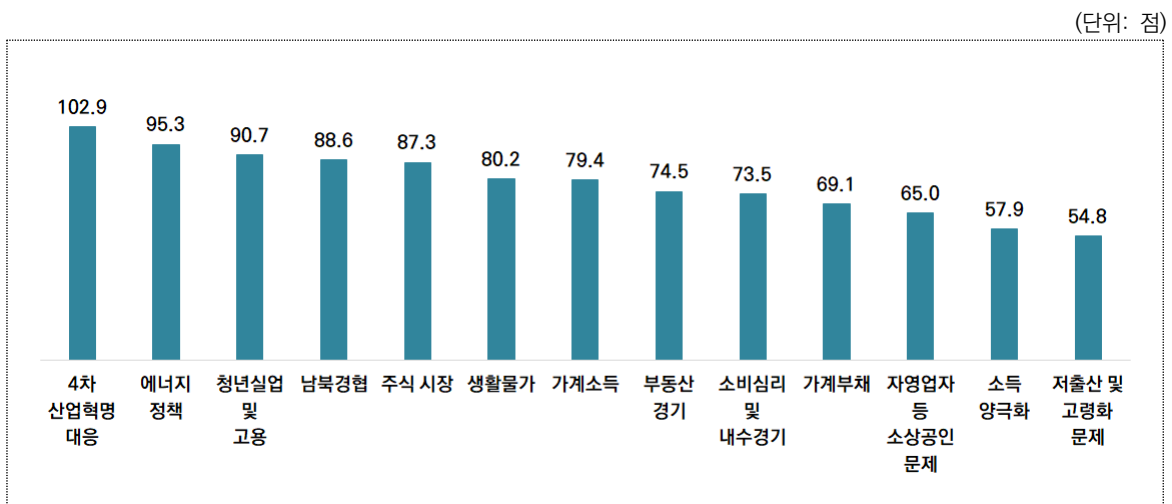


[그림 15] 2020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자료: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 대상 설문조사 중 1,200명 응답

서울시민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인식

-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올해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시민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13개 경제 이슈 중 기준치(100)를 웃도는 이슈는 ‘4차 산업혁명 대응’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경제 이슈는 기준치 이하
 - ‘4차 산업혁명 대응’이 200점 만점에 102.9점⁵⁾으로 유일하게 100점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다음은 ‘에너지 정책’(95.3점), ‘청년실업 및 고용’(90.7점), ‘남북경협’(88.6점), ‘주식 시장’(87.3점) 등의 순이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54.8점으로 개선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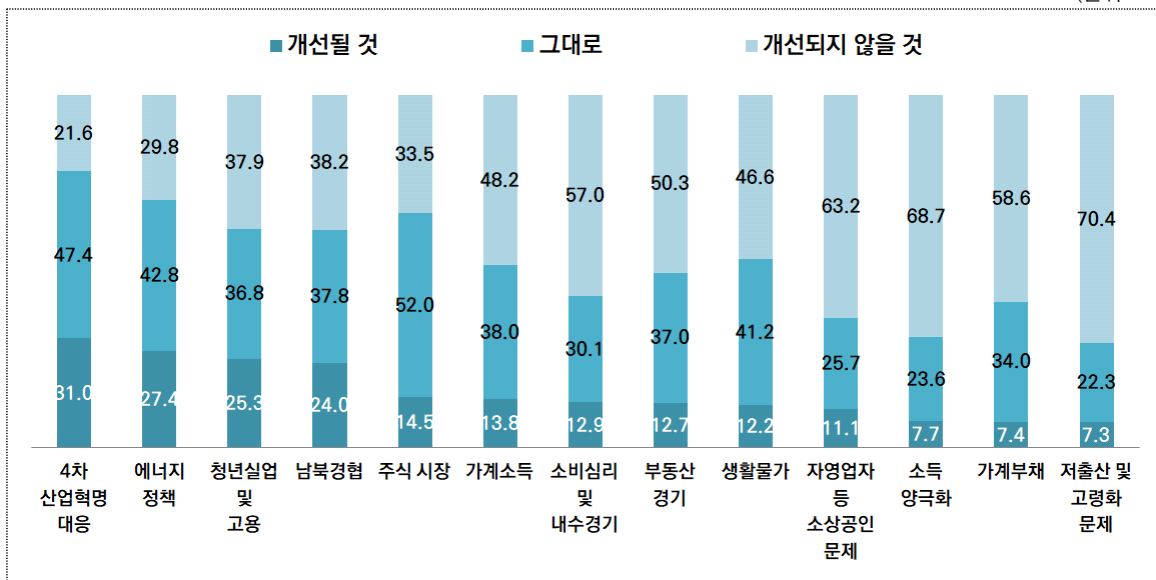


[그림 16] 2020년 경제 이슈별 개선 전망 점수

- 한편 개선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경제 이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고,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경제 이슈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조사
 -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개선될 것으로 본 응답 비율은 31.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에너지 정책’(27.3%), ‘청년실업 및 고용’(25.4%), ‘남북경협’(24.0%) 등의 순
 - 반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70.4%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소득양극화’(68.8%),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63.2%), ‘가계부채’(58.6%) 등의 순으로 조사

5) 올해 대비 내년 경제 이슈 개선 전망은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 0점,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 50점, ‘그대로 이다’ 100점, ‘약간 개선될 것’ 150점, ‘매우 개선될 것’ 200점을 부여하여 환산하였다.

(단위: %)



[그림 17] 2020년 경제 이슈별 개선 전망

부록: 2019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19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9로 전월 대비 2.3p 상승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8년 4/4분기	94.4	87.4	91.1	69.2	83.6	83.8	71.4
2019년 1/4분기	93.7	87.0	90.8	68.9	82.9	82.0	69.5
2019년 2/4분기	92.7	86.0	88.8	67.8	79.5	82.4	70.0
2019년 3/4분기	92.2	84.4	88.2	66.7	76.2	84.2	71.0
2019년 4/4분기	93.3	84.9	89.1	67.0	78.9	84.6	71.9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8년 4/4분기	112.1	96.2	95.4	70.6	149.9
2019년 1/4분기	114.2	95.6	94.4	68.6	148.1
2019년 2/4분기	114.8	96.1	92.6	70.4	145.7
2019년 3/4분기	111.7	94.6	92.0	71.2	140.3
2019년 4/4분기	112.6	96.1	92.9	72.8	137.5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p$ 임(2019년 4/4분기 조사 시점은 2019년 11월 4일~11월 22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